



[산업]
현대중공업,
울 수주목표
153척 초과 달성
06

文 대통령,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企가 살아야 국가경제 산다”

내년에 1조2086억 투입
스마트공장 3만개 추진

‘제조혁신’ 경쟁력 높이고
제조업 강국 재도약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이는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조2086억 원을 배정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인 이상 제조 중소 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면서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국내 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한다”면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30% 가깝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 경쟁이 한창”이라며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면서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일터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산단도 내년에 2곳 지

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을 밝히면서 경제사회노

주주가치 제고 보dan 재벌개혁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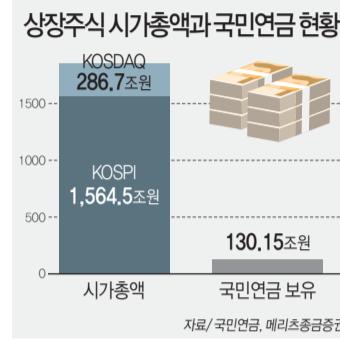
단추 잘못 훠 S코드, 관치연금 논란

〈스튜어드십코드〉

Why?

〈3〉 왜 연금 사회주의인가

정부, 투자자 이익 보다
국민연금 지배력을 원해
단계적 로드맵 제시했지만
영향력행사 가능성 열어둬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라는 책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고객을 위해 집사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에선 정부를 대신해 기업을 관리하는 집사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주주가치 제고인가, 재벌개혁인가

1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340 여개, 지분 10% 이상 기업 130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국내주식 규모는 130조 1500억 원이다.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7.0%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치매구조 개선이나 재벌 개혁 과제와 맞물려 본격화됐다. 투자자 이익 보호보다는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치주의’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셈이다.

◆ 경영참여 가능성 열어둔 국민연금 로드맵

과도한 경영간섭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은 단계적인 주주권 행사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정책 등 의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고, 오는 2020년까지 미개선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발족해 주주권 행사시 영향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0년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론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참여연대 측은 이달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5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저배당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기업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를 언급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세워서 공개하라는 요구에 3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는 게 국민연금 주장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홍남기 “3개월 탄력근로제 기간 조만간 확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충남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기간 논의 내년 2월 마무리 자동차·선박 등 성과 약속”



SECO SEC INCAM



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첫 현장 방문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차 부품 산업이 고용창출력이 높다고 강조하고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현장 감 있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서진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이업체의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진캠’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위). 사측 관계자로부터 핵심부품 설명을 듣고 있는 홍남기 장관.

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중 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취임 전에 내년에